

▶ 내신 기출 문학 미래엔-하편 ◀

4. 한국 문학의 갈래와 흐름

(1) 고대 문학

- *주몽신화 (30문제)-----1쪽
- *공무도하가 (30문제)-----21쪽

(2) 중세 문학

- *찬기파랑가 (29문제)-----34쪽
- *청산별곡 (31문제)-----48쪽
- *경설 (21문제)-----63쪽
- *시조 세 편 (31문제)-----75쪽
- *사미인곡 (32문제)-----89쪽

(3)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

- *어이 못 오던가 (29문제)-----106쪽
- *홍보전 (32문제)-----118쪽
- *절명시 (6문제)-----137쪽

(4) 근현대 문학

- *초혼 (31문제)-----140쪽
- *만세전 (30문제)-----157쪽
- *백록담 (13문제)-----181쪽
- *광장 (18문제)-----192쪽
- *원고지 (28문제)-----206쪽
- *벼 (13문제)-----229쪽
- *내 여자의 열매 (3문제)-----240쪽

5. 문학의 가치

- *다시 느티나무가 (10문제)-----243쪽
- *바퀴벌레는 진화 중 (4문제) -----251쪽
- *그 해 겨울은 따뜻했네 (4문제) -----254쪽

◆빠른 전체 정답-----258쪽

◆해설-----261쪽

교재 버전: 2021.02.10

“주몽 신화” 분석 정리

작품 기관

간체	건국 신화
성격	신화적, 서사적, 영웅적
제제	주몽의 고구려 건국
주제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난 주몽의 영웅적 업적
특징	①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 ② 천손 강림, 난생 등의 여러 가지 신화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음. ③ 후대 영웅 서사 문학의 구조에 영향을 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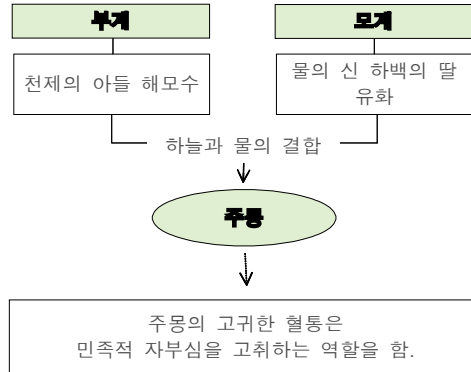
작품의 구성

고귀한 혈통	천신과 수신의 만남으로 태어남.
기이한 출생	유화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임신을 하고 알을 낳음.
어렸을 때 버림을 받음.	금와왕이 알을 버림.
탁월한 능력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고, 활 쏘는 능력이 탁월함.
시련과 위기	대소를 비롯한 금와왕의 아들들로부터 위협을 받음.
조력자의 도움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시련을 극복함.
위대한 업적	고구려를 건국하고 왕이 됨.

핵심 1 건국 신화의 뜻과 특징 및 의의

건국 신화의 뜻과 특징	
• 뜻 : 건국 시조가 나라를 세우게 된 내력을 담은 신성한 이야기 • 특징 : 건국 행위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건국 시조를 신격화함.	
의의	안으로는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고, 밖으로는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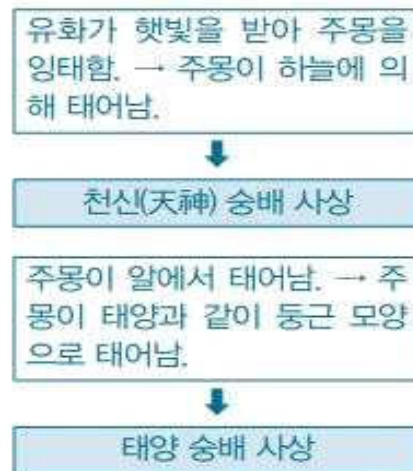
핵심 2 주몽의 고귀한 혈통



핵심 3 주몽의 신이함이 드러나는 장면

• 알에서 태어남.	출생 과정이 기이함.
•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고, 활을 쏘아 파리를 명중시킴. • 죽은 비둘기에게 물을 뱉어 다시 살림.	탁월한 능력을 지님.
•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게 도와줌.	물의 신인 하백의 후손으로서 신(神)의 도움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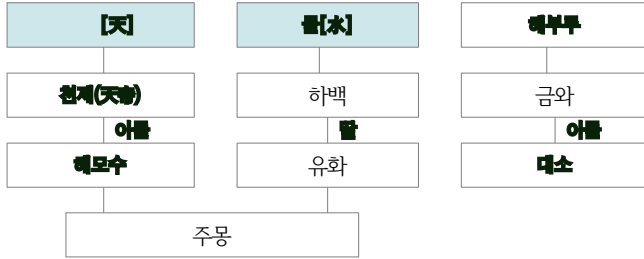
이 작품에 나타난 배경 사상



“주몽 신화” 학습 활동 문제

1 <주몽 신화> 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의 등장인물의 관계도를 완성해 보자.



(2) 주몽의 생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2 문학 작품의 김래적 성격과 문학사에서의 가치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의 생활상은 어떠했는지 본문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여 정리해 보자.

어업	수렵	농경
어사인 강력부추의 말을 통해 어량과 그물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몽이 사냥하는 장면에서 수렵 생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화는 나라를 세우려 떠나는 주몽에게 오곡의 씨앗을 전해 주었고, 뒤에 보리 씨앗을 보내 주었다. 이 장면에서 '신모(神母)'가 보내 주었다는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농경이 신성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신화는 주인공의 신이함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주몽 신화> 에는 이러한 특징이 어느 부분에 나타나 있는지 살펴보자.

- 태어나 한 달이 못 되어서 말을 하고, 활을 쏘아 파리를 명중시킴.
- 비둘기를 활로 잡아서 보리 씨앗을 꺼내고, 물을 뿜어 다시 살아나게 함.

(3) 다음은 이규보가 쓴 <동명왕본> 서문의 일부이다. 고려 시대에 고구려의 건국 신화인 <주몽 신화> 를 다시 정리하여 세상에 전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오늘날 신화는 어떤 가치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세상에서 동명왕(東明王)의 신이(神異)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보통의 남녀들조차도 그 사적을 대략은 말할 수 있다. 나는 일찍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웃으면서 “공자께서는 괴력난신(怪力亂神)을 말씀하지 않았다. 동명왕의 일은 실로 황당하고 기괴한 것이니,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중략> 동명왕의 일은 변화와 신이함으로 여러 사람의 눈을 현혹한 것이 아니요, 실로 나라를 세운 신령한 자취이다. 이것을 기술하지 않는다면, 뒷사람들은 장차 무엇을 살펴볼 수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니,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

- , <동명왕편> 서문에서

나라를 세운 신화의 주인공(주몽)의 신령한 자취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알리고자 한 것이다. 이런 신화의 신성성은 오늘날에도 민족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3 고조선의 건국 신화인 <단군 신화>의 일부이다. <주몽 신화>와 비교하면서 작품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곰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 작자 미상, <단군 신화>에서

(1) <단군 신화>의 웅녀와 <주몽 신화>의 유화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밑에 보자.

웅녀와 유화 모두 건국 시조의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모두 건국 시조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고난을 겪어야 했다. 웅녀는 썩과 마늘을 먹으며 동굴에서 생활해야 했고, 유화는 아버지의 처벌로 흉하게 변하여 귀양가는 고난을 겪었다.

(2) 주몽과 단군의 출생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해 보자.

주몽은 난생(卵生), 즉 유화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 이에 비해 단군은 웅녀가 임신하여 낳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생의 과정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3)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에는 특정한 행동이나 말을 금지하는 요소가 흔히 나타난다. <단군 신화>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 보자.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곰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한 환웅의 말은 큰일을 이루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시련으로서 금기에 해당한다.

“주몽 신화” 읽기 중 문제

161쪽 하백이 해모수와 도술 시험을 한 까닭은 무엇일까?

하백은 해모수가 자신의 딸과 예법을 갖추어 혼례를 올리지 않고 가문을 욕되게 한 것에 화가 나 그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도술 시험을 했다.

교과서 162쪽 주몽이 말의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은 까닭은 무엇일까?

잘 달리는 좋은 말을 알아본 주몽이 앞날을 위해 그 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교과서 163쪽 주몽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는지 말해 보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어서 주몽은 무사히 강을 건널 수 있었고, 자신을 추격하는 병사들에게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모형 자료

가야의 건국 내력을 담은 <가락국기>

이 작품은 여섯 가야의 왕이 즉위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건국 신화로,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출현하는 역사적 상황이 드러난다.

갈래	설화(건국 신화)	성격	신화적, 상징적
주제	수로 왕의 즉위와 여섯 가야의 건국		
특징	① 일반적인 영웅 서사 구조와 달리 ‘고난의 극복과 위업 달성’의 단계가 드러나 있지 않음. ② 사건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이 제시되어 신뢰감을 줌.		

구인공의 생애가 유사한 작품: 허균의 <홍길동전>

이 작품은 광해군 때 허균이 지은 국문학상 최초의 한글 소설로, 불합리하고 모순된 사회 제도에 맞선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소개하고 새로운 이상 세계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성격	현실 비판적, 전기적(傳奇的)
주제	적서 차별 철폐와 인간 평등		
특징	① 개인과 사회의 갈등을 통한 현실 비판적 주제를 드러냄. ② 영웅 소설의 전형적 인물이 등장하며 전기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告)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룡거(五龍車)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神異)한 재주가 있는가?”라 했다.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輿)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

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허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아위었다.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陝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

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스스로 피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에 나타난 신화의 특성 중 주인공의 신이함이 강조되어 있는 부분만으로 묶은 것은?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양재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을 그 갈래적 성격과 가치를 고려하여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작품이 형성된 시기에는 농경이 신성시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② 수렵을 위해 말이 중요했기 때문에 왕자들도 말을 기르는 일을 도왔다.
- ③ 어머니는 버리고 떠나는 주몽의 모습에서 당시의 남존여비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④ 주몽의 행적 위주의 구체적이고 사실적 진술로 신뢰성이 높은 글이다.
- ⑤ 유화와 해모수의 사랑은 당대 사람들의 자유로운 애정관을 설명해준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3. 한국문학의 영웅 서사에서는 대체로 <보기 2>와 같은 공통적인 구조(영웅 일대기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보기 1>

길동은 흥 판서와 시비 춘섬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난다. 그는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나 흥 판서의 사랑을 받지만, 천비 소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율분의 나날을 보낸다. 길동은 집안에서 흥 판서의 첩인 초란이 자신을 시기하는 마음에 음해하여 죽이려는 것을 알고 출가한다. 위기를 피해 집을 나와 떠돌던 중, 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만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활빈당(活貧黨)을 조직한다. 길동은 도술에 능하여 신출귀몰하며 팔도의 탐관오리들을 응징하고 양민을 돕지만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애쓴다. 조정에서 길동을 회유하려고 병조 판서로 임명하자, 길동은 조선을 떠나 남경으로 가던 중 울도국을 발견하고 이를 정벌하여 왕이 된다. 길동은 울도국에서 선정을 베풀다가 신선이 되어 사라진다.

- 허균, 「홍길동전」 줄거리

<보기 2>

고귀한 혈통
기이한 출생
㉠ 어려울 때 버림을 받거나 위기를 겪음
㉡
시련과 위기
조력자의 도움과 시련극복
㉢

- (1) <보기 1>에서 <보기 2>의 영웅 일대기 구조 중 ㉠에 해당되는 내용을 찾아 윗글의 내용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주몽신화와 홍길동전의 내용을 비교하여 둘 다 언급하되, 하나의 완전한 문장으로 쓰시오.)
- (2) <보기 2>에 정리된 영웅 일대기 구조의 흐름 중 ㉡,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부여 왕은 정승 아란불(阿蘭弗)의 꿈에 나타난 천제(天帝)의 말에 따라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東扶餘)'라 하였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神雀) 3년에 천제의 아들 해모수(解慕漱)가 내려왔다.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河伯)의 세 딸인 유화(柳花), 흰화(萱花), 위화(葦花)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 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인 유화는 미처 달아나지 못하여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①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증대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龍車(용거)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告(고)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五龍車(오룡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나)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②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與)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③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놓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鄒)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닳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머니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중략)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중략) 태자인 대소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④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 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물레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라)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陜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⑤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마)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 작자 미상, <주몽신화>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 나타난 천신과 수신의 결합으로 인해 주인공이 비범성을 획득한다.
- ② (나)는 주인공의 신이한 능력이 부각되면서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다)와 (마)에서 당대에 어업, 수렵, 농경생활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대 영웅 소설에 영향을 미친다.
- ⑤ 이 작품은 민족 내의 결속력을 높이고, 밖으로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5.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을 바르게 이해한 내용으로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옛날에 환인의 서자 환웅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만 했다. 이에 천부인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중략) 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요 임금이 왕위에 오른 지 50년인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비로소 고조선을 건국하게 된다.

- 작자 미상, <단군 신화>에서

<보기2>

- ㄱ. <보기1>과 윗글은 주인공의 부모가 모두 신적인 존재이다.
- ㄴ. <보기1>과 윗글 모두 천손강림(天孫降臨)의 요소가 나타난다.

- ㄷ. <보기1>은 고조선의 건국신화이고, 윗글은 고구려의 건국신화이다.
- ㄹ. <보기1>과 윗글의 주인공 모두 어린 시절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겪는다.
- ㅁ. <보기1>과 윗글 모두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통해 이야기의 주축을 이끌어 나간다.
- ㅂ. <보기1>은 투쟁과 갈등의 요소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윗글은 투쟁과 갈등의 요소가 드러난다.
- ㅅ. <보기1>은 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치지만 윗글은 난생(卵生)을 통한 비정상적인 출산의 과정을 거친다.

- ① ㄱ, ㄹ, ㅁ ② ㄴ, ㄷ, ㅂ
- ③ ㄴ, ㄷ, ㅁ, ㅅ ④ ㄴ, ㄷ, ㅂ, ㅅ
- ⑤ ㄱ, ㄴ, ㄷ, ㅂ, ㅅ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하백은 중매를 거치지 않고, 자신의 딸을 취한 해모수의 태도에 화가 난 상태이다.
- ② ㉡에서 하백은 해모수의 뛰어난 능력을 확인하고 나서 딸의 남편감으로 흡족한 상태이다.
- ③ ㉢으로 인해 결국 해모수와 유화가 이별하게 되었다.
- ④ ㉣은 대소와 겨루고 싶지만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주몽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 ⑤ ㉤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7. (1) <보기> ㉤의 내용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2) 해당하는 부분을 윗글에서 2군데를 찾아 문장의 형태로 서술하시오.

<보기>

고전소설에는 현실에서 일어나기 힘든 기괴하고 신기한 사건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사람이 물고기로 변하는 등 일상적이고 현실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신비롭고 허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이를 (㉤)이라 한다.

<조건>

<보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왕은~정하였다.’처럼 첫 어절과 끝 어절에 해당하는 부분만 예시와 같은 형태로 적는 것도 허용되되, 1문장씩 제시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백은 크게 노하여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하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제의 아들인데, 이제 하백에게 구혼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네가 천제의 아들로 나에게 구혼을 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를 보내야 할 것이다.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라 하였다. 왕은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 보려 하였으나 궁실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龍車)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라 했다. 왕이 하늘을 가리키며 고(告)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오룡거(五龍車)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왕과 ㉠여자가 오룡거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뒤에 말하되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나의 가문을 욕되게 하였는가? 왕이 천제의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神異)한 재주가 있는가?라 했다.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 하였다.

이에 하백이 뜰 앞의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하백이 다시 사슴이 되어 달아나니 왕은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다.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제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다.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뒤에 딸과 함께 작은 혁여(革輿)에 넣어 용거에 실어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여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 하늘로 올라갔다. 하백은 크게 노하여 그 딸 유화에게 말하되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가문을 욕되게 했다.”고 하고, 주위의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딸의 입을 잡아 늘여 그 입술의 길이가 삼 척이나 되게 했다. 그리고 노비 두 사람만을 주어 우발수(優渤水)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어사(漁師) 강력부추(強力扶耡)가 금와왕에게 고하기를 “요즈음 어량(魚梁) 안의 고기를 훔쳐 가는 자가 있는데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라 하였다. 왕이 어사를 시켜서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쇠 그물을 만들어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가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입술을 세 번 자른 뒤에야 말을 했다. 왕이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별궁(別宮)에 두었는데,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신작(神雀) 4년 계해년(癸亥年) 4월에 주몽(朱蒙)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처음 주몽을 낳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닭 되들이쯤 되는 알을 하나 낳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새알을 낳았으니 상스럽지 못하다.”라 하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馬木)에 가져다 두었으나 알들이 밟지 않았고, 깊은 산에 버렸으나 온갖 짐승이 모두 보호했다. 또한, 구름이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있었다.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아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되어 말을 하였다.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 하니,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의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다. 부여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어졌다. 금와 왕에게는 아들 일곱이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왕자가 사십여 명을 이끌고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다. 왕자가 질투하여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 놓고 사슴을 빼앗아 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 버리고 돌아왔다. 태자(太子)인 대소(帶素)가 왕에게 말하되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여 그의 뜻을 시험코자 했다.

주몽은 속으로 한을 품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인데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내가 듣건대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에 의지한다고 했다.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으로 가서 긴 말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두 길이나 되는 난간을 뛰어넘었다.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허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허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하여 매우 야위었다.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윈 말을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서 먹을 것을 주었다. 주몽은 오이(烏伊), 마리(摩離), 협보(陜父) 등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개사수(蓋斯水)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천제의 손자요 하백의 외손으로, 지금 난을 피해 여기에 이르렀나이다. 황천후토(皇天后土)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주교(舟橋)를 보내 주소서.”라 하였다.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었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에 이르렀는데, 물고기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지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너는 어미의 염려는 하지 말라.”라 하고 이에 오곡(五穀)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고 말았다.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다. 주몽은 말하되 “분명

히 신모(神母)께서 보리 씨앗을 보내신 것이다.”라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다. 목구멍을 벌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다. ㉔왔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 작자 미상, <주몽 신화>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8. ㉔ ~ ㉔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㉔는 구혼 상대에게 용거(龍車)를 보내는 예를 갖추지 않아 상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 ② ㉔는 부여의 임금으로, 유화가 천제 아들의 비(妃)임을 알고 그녀를 보살피는 인물이다.
- ③ ㉔는 부여의 임금으로, 신하들로부터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이다.
- ④ ㉔는 ㉔가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그를 마목(馬牧)에 버려 제거하려 하였다.
- ⑤ ㉔는 ㉔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일단 후일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말 기르는 일을 계속하였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9. <보기>는 영웅 일대기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윗글'의 주인공의 행적을 <보기>와 연관 지었을 때, ㉔ ~ ㉔에 대한 해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㉔ 고귀한 혈통
㉔ 기이한 출생
어린 시절의 시련
㉔ 비범한 능력
㉔ 성장 후의 시련
조력자의 도움
㉔ 위업 달성

- ① ㉔ : 주인공은 하늘의 혈통인 부계(父系)와 평범한 인간인 모계(母系)의 혈통이 결합하여 태어났다.
- ② ㉔ : 주인공의 출생에는 천손 강림, 난생 등 다양한 신화적 요소가 나타난다.
- ③ ㉔ :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으로 활쏘기를 강조한 이유는 당시 지도자에게 요구되었던 덕목과 관련이 있다.
- ④ ㉔ :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주인공이 겪는 시련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㉔ : 주인공이 나라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0. <보기>를 참고하여, ㉔와 ㉔의 공통점을 세 가지만 쓰시오.

<보기>
<p>곰 한 마리와 호랑이 한 마리가 있어 같은 굴에 살면서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에게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은 신령스러운 썩 한 타래와 마늘 스무 쪽을 주면서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 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며 곧 사람의 모습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곰과 호랑이는 이것을 얻어먹고 삼칠일 동안 금기하였는데 곰은 ㉔여자의 몸이 되었으나 호랑이는 금기를 못하여 사람의 몸으로 되지 못하였다. 웅녀는 그와 혼인할 사람이 없어 매번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갖게 해 달라고 빌었다. 환웅이 이에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그와 혼인한 후 웅녀가 아이를 임신하여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p>

“공무도하가” 분석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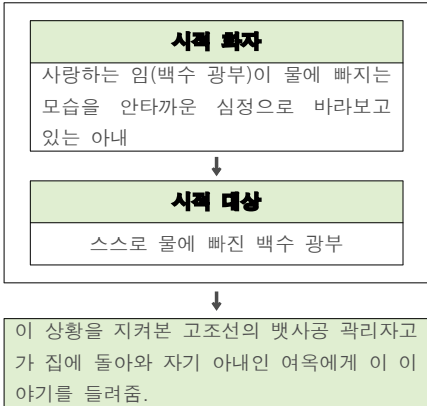
작품 기법

간체	고대 가요, 서정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체념적
제재	물
주제	임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과 한(恨)
특징	① 시적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함. ② ‘물’의 상징적 의미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함.

작품의 구성

1행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2행	임이 물을 건넌.
3행	임이 물에 빠져 죽음.
4행	임의 죽음을 한탄함.

핵심 1 시적 화자의 시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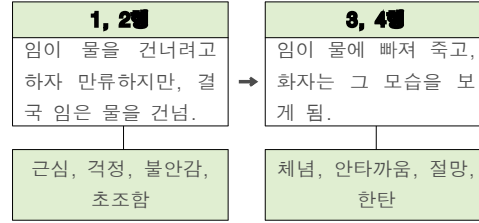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물’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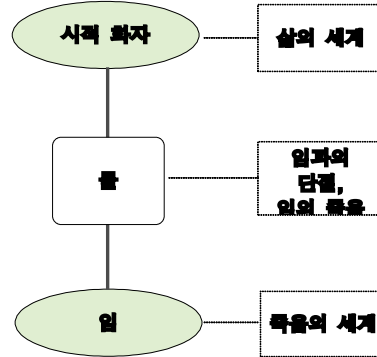
예술에서의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삶과 죽음, 정화 혹은 정화를 통한 재생, 생명과 삶의 원천, 충만한 사랑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원형 상징으로 활용된다.

이 작품에서 임은 물에 빠져 죽게 되면서 화자와 이별하게 된다. 따라서 ‘물’은 ‘삶과 죽음의 경계’, ‘화자와 임의 단절’, ‘이별’, ‘슬픔’ 등의 의미를 지닌다. 또한 1행의 ‘물’은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 ‘사랑’ 등이 담겨 있다고 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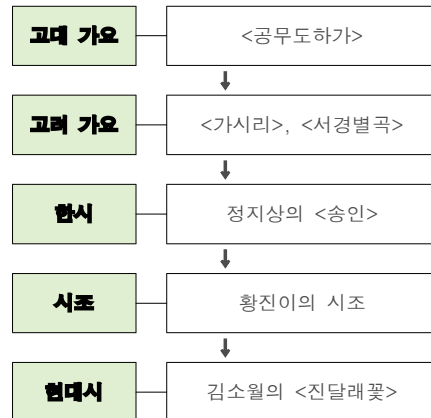
핵심 2 시적 화자의 경서 변화



핵심 3 ‘물’의 이미지



핵심 4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의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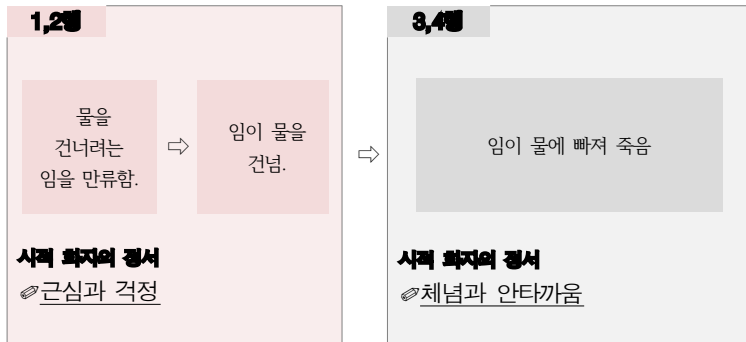
<p>「公無渡河 공무도하 公竟渡河 공경도하 墮河而死 타하이사 當奈公何 당내공하」 『: 4언 4구체 한역 시가원』</p>	<p>입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 입을 만류함. 남편 중심 소재 - 이별, 슬픔, 단절, 사랑 등이 담겨 있음.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 임이 떠남.(이별)</p> <p>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 임의 죽음</p> <p>가신 입을 어찌할꼬. ▶ 임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체념 화자의 체념적 어투</p>
--	--

“공무도하가” 학습 활동 문제

1 <공무도하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임’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자.
- 시적 화자의 말을 듣지 않고 물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 죽는다.
 - 고집이 세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은 위험해도 한다.

- (2) 제시된 배경 설화를 고려할 때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2 <공무도하가>의 문학사적 가치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 (1) 다음 글을 참고하여 한국 문학사에서 <공무도하가>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원시 및 고대 초기의 시가는 집단이 공유하는 정서를 담은 노래였다. 또한 국중 대회(國中大會)와 같은 집단적인 행사에서 주로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노래에서는 주술적이거나 제의적인 요소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다가 시대가 흘러 점차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노래에는 개인의 고민이나 정서가 담겨 있다.

이 작품은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하다가 실패하게 되고 결국 임이 죽음에 이르자 안타까워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개인’이 향유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높고 ‘개인의 고민과 정서’를 담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로 보아 <공무도하가>는 우리 고대 문학에서 ‘개인 서정시’ 출현의 사례로 해석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다.

- (2) 이 작품에서 ‘물’이 지닌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그리고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물’의 의미가 <공무도하가>와 유사한 작품을 찾아보자.

<공무도하가>에서 ‘물’의 의미	사랑, 이별(임과의 단절), 죽음
‘물’의 의미가 <공무도하가>와 유사한 작품	정지상의 <송인(送人)>

3 다음은 고구려의 노래인 <황조가>와 그 배경 설화이다. 배경 설화와 함께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① 翩翩黃鳥 雌雄相依 念我之獨 誰其與歸	떨떨 나는 저 피꼬리 암수 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누와 함께 돌아갈꼬.
--------------------------------	---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② 고구려 제2대 왕인 유리왕은 왕비 송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두 사람의 왕비를 새로 맞이하였다. 한 사람은 골천 사람의 딸인 화희(禾姬)이고, 다른 한 사람은 중국 한(漢)나라 사람의 딸인 치희(雉姬)였는데, 두 왕비가 자주 다투었기 때문에 유리왕은 두 개의 궁궐을 지어 각각 다른 곳에서 지내게 하였다.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7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동안 두 왕비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다. 화희가 치희를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한나라 집안의 비천한 계집인데, 어찌 그리 무례한가?”
하니, 치희는 한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 분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다. 뒤늦게 돌아온 유리왕은 급히 말을 달려 따라갔지만, 치희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어느 날 유리왕이 나무 밑에서 쉬다가 피꼬리가 날아서 모여드는 것을 보았다. 이에 느낀 바가 있어 노래하였는데, 이것이 <황조가>이다.

- 김부식, 《삼국사기》에서

작품 개관	
길래	고대 가요, 서정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재제	피꼬리
주제	임을 잃은 외로움과 슬픔
특징	① 작가와 창작 연대가 구체적으로 알려진 고대 서정 가요임. ② 시적 화자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적 화자의 정서를 강조함.

(1) <공무도하가>와 <황조가>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 공통점: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 차이점: <황조가>와 달리 <공무도하가>에서는 임이 죽었기 때문에 시적 화자와 재회가 불가능하지만, <황조가>에서는 떠난 임이 돌아온다면 재회가 가능하다.

(2) <공무도하가>, <황조가>와 같은 고대 문학 작품이 오늘날에도 감동을 준다면 그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사랑과 이별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깊은 감동을 준다.

모형 자료

유사한 작품: 작자 미상의 <구지가>

이 작품은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의 탄생 신화 속에 삽입되어 있는 고대 가요로, 임금의 강림을 바라는 집단의 소망을 담고 있다.

길래	고대 가요, 집단 가요	성격	제의적, 집단적, 주술적
재제	거북의 머리		
주제	임금의 강림 기원		
특징	① 현전하는 고대 가요 중 가장 오래된 집단 무가이자 노동요임. ② 대상에 대한 명령과 위협을 통해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강조함.		

가 유사한 작품: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작품은 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절정에 이른 상태에서 이를 정신적으로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을 노래한 시이다. 일제 강점기의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씌어진 시>에 나타난 작가의 현실 인식 태도와 비교하며 감상할 수 있다.

길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향토적, 민요적, 여성적
재제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과 승화		
특징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이별의 한을 승화시키고 있음. ② 1연과 4연이 수미상관을 이룸. ③ 3음보의 민요적 율격과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음.		

4-(1) 공무도하가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임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나)
翩翩黃鳥 펄펄 나는 꾀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답구나.
念我之獨 외로워라 이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양재고등학교 (서울)

1. (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화자와 자연물을 대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② 원형적 상징을 가진 시어를 사용하여 보편성을 추구한다.
- ③ 제의적이고 주술적인 노래로 권력의 출현과 관련이 있다.
- ④ 이별 상황을 소재로 하여 개인의 서정을 담은 시이다.
- ⑤ 고조선의 노래로 관련 설화와 함께 기록되어 전한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화자의 태도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마음이 어리석으니 하는 일이 다 어리석다.
겹겹이 구름이 쌓인 산 속에 어찌 임이 찾아오겠느냐마는
떨어지는 나뭇잎 소리와 부는 바람 소리에도 행여 임인가
생각하노라.
- 서경덕의 시조
- ② 천만리 머너먼 길에 고은 입을 두고 돌아오다가
내 슬픈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냇가에 앉았더니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흘러 가는구나.
- 왕방연의 시조
- ③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걸로 눈물 흘리며 속이 타들어 가는 줄 모르는가?
저 촛불도 나와 같이 속이 타는 줄 모르는구나.
- 이개의 시조

- ④ 배꽃이 비 내리듯 흠날릴 때 울면서 소매를 부여잡고 이별한 임
세월이 흘러 가을 바람에 낙엽이 지는 이때에 임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멀리 떨어져 있기에 외로운 꿈속에서만 나를 찾아 오셨다
가 가시는구나.
- 계량의 시조
- ⑤ 청산 속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
마라.
한 번 넓은 바다에 다다르면 다시 청산으로 돌아오기 어려
우니
밝은 달이 산에 가득 차 있는, 이 좋은 밤에 나와 같이 쉬
어감이 어떠냐?
- 황진의 시조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3.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설의법과 선경후정의 전개방식이 나타난다.
- ② (가)는 작가가 피지배계층이고, (나)는 작가가 지배계층이다.
- ③ (가)는 임과의 재회가 불가능하지만 (나)는 재회의 가능성이 있다.
- ④ (가)는 대조되는 대상물이 없지만 (나)는 대조되는 대상물이 있다.
- ⑤ (가)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지 않지만 (나)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4. (가)의 ㉠ ~ ㉢의 물의 상징적 의미가 어떻게 변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1. ㉠ ~ ㉢의 기호를 언급하여 설명할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公無渡河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墮河而死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 광부의 아내,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

(나)
翩翩黃鳥 펄펄 나는 ㉡피꼬리
雌雄相依 암수 서로 정답구나.
念我之獨 외로워라 이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黃鳥歌)>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인류의 보편적 감정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② (나)와 달리 (가)에는 화자와 이별하게 되는 대상이 작품에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집단적인 바람을 드러내는 노래로, 고구려의 국중 대회에서 자주 불렸다.
- ④ ㉠는 삶과 죽음의 경계임과 동시에 대상이 그것을 건너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 ⑤ ㉡는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감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6. (가)의 설명 중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이다.
ㄴ. 시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ㄷ. 정서가 체념과 한탄에서 걱정과 초조로 변화한다.
ㄹ. 4언 4구의 한역시가로 이루어진 고대가요 작품이다.
ㅁ. 반복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7. (가)의 시적 상황과 유사하지 않은 작품은?

- ① 가시리 가시리 잇고 나난 /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난 / 위 증줄가 대평성대 //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 / 버리고 가시리 잇고 나난
- ② 비 개인 긴 언덕에는 풀빛이 푸른데 / 그대를 남포에서 보 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 대동강 물은 그 언제 다할 것인가. / 이별의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에 더하는 것을.
- ③ 어저 내 일이야 그럴 줄을 모르던가 / 이시라 하더면 가라 마는 제 구태여 /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 ④ 창 내고자 창 내고자,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 (중략) 크 나큰 장도리로 똑딱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 잇다감 하 답답할 제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
- ⑤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 영변에 약산 / 진달래꽃 / 아름 따다 가실 길에 / 뿌리우리다 //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찬기파랑가” 분석 정리

작품 기법

간체	10구체 향가
성격	추모적, 서정적, 예찬적
제재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
주제	기파랑에 대한 추모와 예찬
특징	① 뛰어난 상징과 비유를 통해 기파랑의 모습과 인격을 형상화함. ② 대상을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제시함. ③ <제망매가>와 더불어 가장 서정성이 높은 향가 작품으로 평가됨.

작품의 구성

1~5행	기파랑의 고결한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함.
6~8행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음.
9~10행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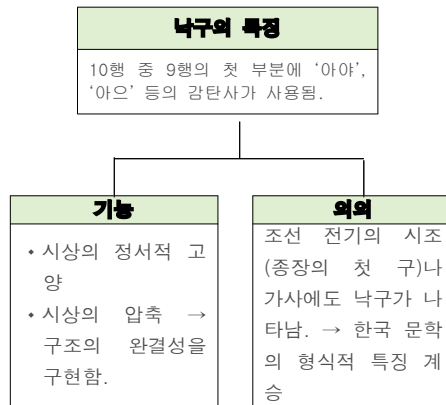
핵심 1 향가의 감성적 특징

기법	신라의 대표적 시가이며 향찰로 기록함.
전기	8~10세기 무렵 활발하게 창작·소통됨.
형식	4구체, 8구체, 10구체
특징	• 민요에 바탕을 둔 작품에서 개인이 창작한 서정시까지 성격이 다양함. • 승려, 화랑 등 지식인 계층이 대체로 향유함.

핵심 2 소재의 상징적 의미

잣나무 가지	↔	눈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존재 → 기파랑의 높은 절개	대립	시련, 역경, 부정한 세력 등

핵심 3 '낙구'의 기능과 의의



늦겨곰 브라매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불간 ▷라리 <small>돌(달).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small>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몰이 가른 물서리어히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이 즈시 올시 수프리야 <small>모습과도 같은 ▶기파랑의 고결한</small>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모습을 떠올리며 그의 부재를 안타까워함.
일오(逸烏) 나릿 지버귀 <small>넋물의 이름 화자가 있는 공간</small>	일오(逸烏)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여 디니더시온	낭(郎)이 지니시던
막스미 구슬 좇느라져 <small>기(것) 끝</small>	마음의 것을 좇고 있노라. ▶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본받고 싶음.
아야 (자)짓가지 노포 <small>낙구의 감탄사 '기파랑'의 고결한 절개</small>	아아,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 이 모듈 두풀 꽃가리여 <small>눈(시련, 역경) 잣나무의 윗가지 부분이 '기파랑'의 고결처럼 보임.</small>	눈이라도 덜지 못할 고깔이여. ▶ 기파랑의 인품과 높은 절개를 예찬함.



“찬기파랑가” 학습 활동 문제

1 찬기파랑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시적 화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적 화자는 일오내 자갈 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

(2) 다음 시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 보자.

가지	눈
기파랑의 고매한 인격(인품)	장애물, 고난, 역경

2 <찬기파랑가》를 통해 향기의 길터적 성격과 흐름을 살펴보자.

(1) 다음은 향기인 <헌화가>와 <처용가>를 현대어로 풀이한 것이다. <찬기파랑가>와 함께 비교하며 감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기의 형식에 대해 말해 보자.

<p>㉠ 자쫓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노옹(牽牛老翁) 지음, 김완진 해독, <헌화가(獻花歌)></p>	<p>㉡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지음, 김완진 해독, <처용가(處容歌)></p>
---	--

4-(2) 찬기파랑가

〈헌화가〉

	4구체 향가
성격	민요적, 서정적
제지	수로 부인, 꽃
주제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연정
특징	① 신라인의 소박하고 보편적인 미의식을 보여 줌. ② 가정법과 자연물(꽃)을 통해 시적 화자의 심리를 드러냄.

■ 〈처용가〉

길이	8구체 향가	성격	주술적
제지	역신(疫神)의 침범		
주제	아내를 범한 역신을 쫓아냄.		
특징	①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축사(逐邪)의 노래임. ② 영탄을 통해 분노와 슬픔, 체념과 관용의 감정을 동시에 드러냄.		

〈찬기파랑가〉는 10행으로 구성되어 있고, 〈헌화가〉는 4행, 〈처용가〉는 8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향가는 행의 수에 따라 4구체, 8구체, 10구체로 나눈다.

(2) 다음 시조의 밑줄 친 부분을 참고하여, 〈찬기파랑가〉 제9행의 ‘이야가 한국 문학의 전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말해 보자.’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 후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후노라.

길이	평시조, 정형시, 서정시	성격	회고적, 감상적
제지	오백 년 도읍지		
주제	망국의 한과 인생무상		
특징	① 대조법을 활용하여 무상감을 부각함. ② 감탄사를 사용하여 시적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찬기파랑가〉 9행의 ‘이야’와 제시된 시조 종장의 ‘어즈버’를 통해서 두 작품은 형태적 유사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구체 향가의 낙구와 시조의 종장 첫머리에 감탄사가 배치되어 유사한 결구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감탄사는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된 기능을 갖는다. 감탄사를 계기로 하여 앞에서 노래했던 사물이나 풍경에 시적 화자가 부여한 의미가 진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다고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찬기파랑가〉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차자 표기(借字表記)의 방식으로 기록된 작품이다. 이와 같은 작품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기에는 한자에 의존하여 문학 작품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향가 역시 한자를 활용한 향찰로 표기되었는데, 향찰은 한자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어순에 맞게 기록한 방법이다. 따라서 향가는 문자가 없던 시절에 시가 작품이 우리말로 어떻게 불렸는지 짐작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외래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咽鳴爾處米 늦겨곰 부라매
 露曉邪隱月羅理 이슬 불간 득라리
 白雲音逐干浮去隱安支下 흰 구름 조초 떠간 언저레
 沙是八陵隱汀理也中 물이 가른 물서리여히
 耆郎矣兒史是史藪邪 기랑(耆郎)이 즈시올시 수프리야
 逸鳥川理叱磧惡希 일오(逸鳥) 나릿 지벽괴
 郎也持以支如賜烏隱 낭(郎)이여 디니더시은
 心未際叱勝逐內良齊 마음미 깃솔 좃노라져
 阿耶栢史叱枝次高支好 아야 자싯 가지 노포
 雪是毛冬乃乎尸花判也 누니 모돌 두폴 꽃가리여

흐느끼며 바라보매
 ㉠이슬 밝힌 달이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耆郎)의 모습이올시 수풀이여.
 ㉢일오(逸鳥)내 자갈 벌에서
 낭(郎)이 지니시던
 ㉣마음의 깃을 좃고 있노라.
 아야, 잣나무 가지가 높아
 ㉤눈이라도 덮지 못할 곁이여.

- 충답사 지음, 김완진 해독, '찬기파랑가'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과 <보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항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춧빛 바위 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 견우 노옹(牽牛老翁) 지음, 김완진 해독, <헌화가(獻花歌)>

동경(東京)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러라.
 둘은 내해였고
 둘은 누구했고.
 본디 내해다마는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오.
 - 처용 지음, 김완진 해독, <처용가(處容歌)>

- ① 한자의 음과 뜻을 활용한 차자 표기 방식으로 기록되어 전한다.
- ② 항가에는 4구체, 8구체, 10구체 등 다양한 형식이 있다.
- ③ 그리움, 구애, 축사(逐邪) 등 소재와 정서가 다양하다.

- ④ 서정적인 것, 주술성을 띤 것 등 작품의 성격이 다양하다.
- ⑤ 대부분 민요가 구전되다가 기록되어 정착된 것이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윗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가 시상 전개상 갖는 기능과 문학적 의의를 서술하시오.

<보기>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히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煙月)이 솟이런가 흐노라.

- 길재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대상의 인품을 자연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에서 수풀을 통해 대상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③ ㉢에서 대상의 부재를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④ ㉣에서 대상을 좃고자 하는 화자의 흠모하는 정서가 표현되어 있다.
- ⑤ ㉤에서 어떠한 시련도 이겨내는 대상의 높은 인품을 찬양하고 있다.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4. 윗글에서 시적 대상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을 찾아 쓰시오. (단, 2행을 초과하지 말 것.)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8. 윗글이 <보기>의 갈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반드시 두 글에서 구절을 각각 찾아 언급하고, 핵심어를 포함하여 2가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봄이 왔다 후퇴 소식을 모로더니
 냇가에 프른 버들 네 몬져 아는구나
 어즈버 인간이별을 또 엇지한다.
 - 신희, <봄이 왔다~>

<조건>

1. 윗글이 <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핵심어를 포함하여 2가지를 설명할 것.
 2. 1가지에는 반드시 윗글과 <보기>에 있는 구절을 각각 찾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할 것.

부산중앙고등학교 (부산)

9. (나)에서 기파랑의 자태나 성품을 나타내는 소재를 현대어로 4가지를 적고, 이에 해당하는 기파랑의 품성을 <조건>에 맞게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1. 소재는 윗글에 나타난 원문의 내용을 현대어로 풀이하여 옮길 것.
 2. 소재에 해당하는 자태나 품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0. 윗글은 신라 시대 문학의 한 갈래에 속한다. 이 갈래에 대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하고 있는 사람은?

- ① 은비 : 이 갈래의 명칭을, 신라의 노래라는 뜻의 '사뇌가'라고 불러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 ② 예나 : 하지만 그 명칭은 이 갈래에서도 특정 길이의 작품에만 쓰이는 용어인데? 갈래 전체를 포괄하지 못해.
- ③ 채연 : 그것보다, 이 갈래에 속하는 작품이 총 25수밖에 안 된다는 게 놀라워.
- ④ 채원 : <삼국사기>가 없었으면 훨씬 더 적은 수가 전해졌을 거야.
- ⑤ 원영 : 주요 작가 계층이었던 화랑이 쇠퇴한 것이 이 갈래의 몰락에 일조했을 거야.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11. 다음 중 밑줄 친 ㉠의 의미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 ① 白雪(백설)이 즈자진 골에 구루미 머흐레라.
 반가온 梅花(매화)는 어니 곳인 피엿논고
 夕陽(석양)의 홀로 서 이셔 갈 곳 몰라 호노라.
- ② 이 몸이 주겨 가서 무어시 뵈소 하니,
 蓬萊山(봉래산) 第一峯(제일봉)에 落落長松(낙락장송) 되야 이셔,
白雪(백설)이 滿乾坤(만건곤)을 제 獨也靑靑(독야청청) 흐리라.
- ③ 간밤의 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長松(낙락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미라.
 흐믈며 못다 핀 곳이야 닐러 므슴 흐리오.
- ④ 바람이 눈을 모라 山窓(산창)에 부딪치니,
 찬 氣運(기운) 시여 드러 줌든 梅花(매화)를 侵擄(침노)한다.
 아무리 열우려 흐인들 봄 쫓이야 아슬소냐.
- ⑤ 눈 마즈 휘여진 디를 누라서 굽다턴고.
 구불 節(절)이면 눈 속에 프를소냐.
 아마도 歲寒高節(세한 고절)은 너뿐인가 호노라.

“청산별곡” 문법 정리

작품 기법

갈래	고려 가요, 서정시
성격	현실 도피적, 애상적, 낙천적
제재	청산, 바다
주제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특징	① ‘A-A-B-A’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남. ② 후렴구에 ‘ㄹ’과 ‘ㅇ’ 음을 반복하여 음악성을 드러냄. ③ 감정 이입, 반복, 상징, 의인, 비교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구사함.

작품의 구성

1연	청산에 대한 동경	청산에서의 삶을 노래함.
2연	삶의 비애와 고독	
3연	속세에 대한 미련	
4연	고독과 외로움	
5연	운명적 고독과 번뇌	바다에서의 삶을 노래함.
6연	바다에 대한 동경	
7연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8연	고뇌의 일시적 해소	

핵심 1 고려 가요의 특징

내용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 남녀 간의 사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룸. •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판받기도 함. →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등
형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있으나, 대부분 몇 개의 연이 연속되는 분연체로 이루어짐. • 대체로 3·3·2조 3음보 율격이 나타남. • 후렴구가 있는 경우가 많음.

핵심 2 후렴구의 기능

알리알리 알랑(라)성 알라리 알라

- 악기의 의성어로, 흥을 돋고 노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한 것
- ‘ㄹ’ 음과 ‘ㅇ’ 음의 연속으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가지며,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줌.

핵심 3 시어의 상징적 의미

청산, 바다	시적 화자의 이상향으로 현실과 대조되는 공간
새	시적 화자의 분신이며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
밤	시적 화자가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는 시간
물	시적 화자의 의지와는 무관한 인간의 가혹한 운명
강수[술]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잊게 하는 매개체

핵심 4 작가에 따른 해석

‘유랑민’일 경우

몽골의 침략, 무신 집권기의 수탈 등 어려운 상황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유랑민으로 전락한 민중의 애환을 그린 노래

‘지식인’일 경우

혼탁한 사회에서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 수 없어, 속세의 번뇌를 버리고 자연에 묻혀 살고자 하는 지식인의 노래

‘실연한 여인’일 경우

실연의 슬픔을 잊기 위해 자연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여인의 노래

A A B A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 속세와 대조되는 공간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소박한 음식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후렴구 ▶ 청산에 대한 동경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동병상련(同病相憐)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삶의 비애와 고독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속세(청산과 대비되는 공간)
 잉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미련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속세에 대한 미련

이링공 더링공 혀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이리고 더리고'에 음악적 효과를 주기 위해 '으'를 첨가함.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밤, 화자의 외로움이 심화되는 시간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고독과 외로움

“청산별곡” 학습 활동 계획

1 청산별곡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은 8연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두 부분으로 나눈 후 시적 화자의 정서에 유의하여 각각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보자.

	내용
1연~4연	현실에서 벗어나서 청산에서 살고 싶지만, 그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음.
5연~8연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바다로 가고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실에 순응하거나 혹은 현실을 초월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함.

(2) 이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한 대상을 찾아보자.

시적 화자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새'에 이입하여 동병상련(同病相憐)의 정을 느끼고 있다.

(3) 5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시어를 찾고, 그 상황은 어떠한지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자.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돌(돌ㅎ)	시적 화자는 자신에게 던진 것인지 누가 던진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돌에 맞아 울고 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이 울고만 있게 되었다면, 그 상황은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울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산별곡> 이 고려 가요로서 지나는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청산별곡> 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이다. 작품의 내용을 근거로 물어 작가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자.

- 3연에서 농사와 관련된 시어와 시적 상황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작가는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농민)이나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일 것이다.
- 시적 화자는 2연에서 새보다 자신의 시름이 깊다고 하고 4연에서는 밤을 근심한다. 5연에서는 원망할 대상도 제대로 찾지 못한 채 슬피 울기만 한다. 또한 7연과 8연에서 시적 화자는 해금 켜는 상황을 통해 기적을 소망하고 독한 술로 고뇌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은 보통의 민중이라기보다 자기 뜻을 펼 수 없어 고뇌하는 지식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3연에서 시적 화자는 떠난 삶의 터전을 그리워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가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터전을 떠난 유랑민으로 볼 수 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면, 외적의 침입이나 정권의 폭정 등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 작품의 작가였을 것이다.

(2) 이 작품에서 운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 3음보의 율격을 지니며 후렴구가 나타난다.
- 유사한 형식을 갖춘 연이 반복되는 연장체 형식이다.

(3) 다음은 고려 가요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작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모음별로 조사해 보자.

고려 가요는 형식과 주제가 비교적 자유로운 갈래이다.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연장체'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연으로만 이루어진 '단연체'도 있다. 연장체 가운데에는 12개월의 시간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는 ㉠'월령체(月令體)' 작품도 존재한다. 진솔한 감정을 표현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제 면에서는 효도나 충절과 같은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작품부터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이나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 가운데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남녀 간의 사랑을 진솔하게 노래한 작품들은 조선 시대에 ㉢'남녀상열지사(男女相悅之詞)'라고 비판받기도 했다.

- ㉠ — <동동>
- ㉡ — <청산별곡>
- ㉢ — <만전춘별사>, <쌍화점>, <이상곡>

3 <청산별곡> 과 같은 고려 시대 작품인 <공방전(孔方傳)> 의 일부이다. 작품의 표현 방식에 유의하며 가전(假傳)의 문학사적 의의를 함께 보자.

공방(孔方)의 자는 관지(貫之)다. 그의 선조는 옛날에 수양산에 은거하여 동굴에서 살았는데, 일찍 세상으로 나왔지만 쓰이지 못했다. 비로소 황제(黃帝) 때에 조금씩 쓰였으나, 성질이 강경하여 세상일에 매우 단련되지 못했다. 황제가 관상을 보는 사람을 불러 그를 살피게 하니, 관상 보는 사람이 자세히 보고 천천히 말하기를 "산야(山野)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칠어서 사용할 수 없지만, 만약 임금님의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서 갈고 닦으면 그 자질은 점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란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만드는 자리이니, 임금님께서 완고한 구리와 함께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이로부터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중략>

공방의 사람됨은 겉은 둥그렇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세상의 변화에 잘 대응했다. 공방은 한나라에서 벼슬하여 홍려경(鴻烈卿)이 되었다. 당시에 오나라 임금인 비(.)가 교만하고 참람하여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했는데, 공방이 비를 도와 이익을 취했다. 호제(虎帝) 때에 나라가 텅 비고 창고가 텅 비게 되었는데, 호제가 이를 걱정하여 공방을 부민후(富民侯)로 임명했다. 그 무리인 염철승(鹽鐵丞) 근(謹)과 함께 조정에 있었는데, 근이 항상 공방을 가정(家兄)이라고 부르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공방은 성질이 탐욕스럽고 염치가 없었는데, 이미 국가의 재산을 총괄하면서 자모(子母)의 경중을 저울질하는 것을 좋아했다. 공방은 국가를 이롭게 하는 것에는 도자기와 철을 주조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 백성들과 함께 조그만 이익을 다루고, 물가를 올리고 내리고, 곡식을 천대하고, 화폐를 귀중하게 여겼다. 그리하여 백성들이 근본을 버리고 끝을 좇도록 하고, 농사짓는 것을 방해했다.

- , <공방전(孔方傳)> 에서

작품 개관	
갈래	가전
성격	비유적, 우의적, 비판적, 풍자적
제재	돈(엣전)
주제	재물을 탐하는 세태를 경계함.
특징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② 전기(傳記)적 구성을 사용하여 한 인간의 생애를 다루듯 '공방'의 생애를 서술함.

<공방전>에서 '돈'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같이 가전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생애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다. 따라서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간접적·우회적 수법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교훈적 내용을 전달하거나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는 데 적합하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전(傳)은 후대의 고전 소설 발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형 자료

■ 같은 작품: 작자 미상의 <시리>

이 작품은 이별의 정한과 재회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진술한 언어로 표현한 고려 가요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자기희생적인 태도로 떠나는 임이 가자마자 곧 돌아와 주기를 기원하는 모습에서 전통적 한국의 여인상을 엿볼 수 있다.

갈래	고려 가요
성격	서정적, 애상적
제재	임과의 이별
주제	이별의 정한
특징	①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② 간결하고 소박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전통적 정서인 '한'을 표현함.

■ 시가 유사한 작품: 박두진의 <청산도>

이 작품은 청산의 생명력을 통해 청산과 같이 순수하고 건강한 세상에 대한 그리움과 그러한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형상화한 시이다. 광복 후의 혼란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밝고 건강한 이상 세계를 소망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과 혼란한 세상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하며 이상향을 소망하는 <청산별곡>의 시적 화자의 모습을 비교하며 감상해 볼 수 있다.

갈래	산문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상징적
제재	푸른 산
주제	밝고 건강한 세상이 오기를 소망함.
특징	① '산야', '그리워라', '그리노라'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함. ② 의성어와 의태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함.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임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이령공 더령공 허야 나즈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어디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믹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셔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누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이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별곡'

양재고등학교 (서울)

1. 윗글의 5연과 8연에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정서 및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양재고등학교 (서울)

2.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속세와 대조되는 마음의 안식처, 이상향을 뜻한다.

- ② ㉡ : 후렴구로서 리듬감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③ ㉢ : 시적 화자가 감정을 이입하는 대상이자 동병상련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④ ㉣ : '날아가던 새' 또는 '갈던 새'로 해석한다.
- ⑤ ㉤ : 낮 동안의 이런저런 상념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아가는 시간이다.

광영고등학교 (서울)

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연의 '청산'과 4연의 '바르' : 가고 싶은 이상향
- ② 2연의 '새'와 3연의 '새' : 감정 이입의 대상
- ③ 1연의 '멀위'와 6연의 '누므자기' : 보잘 것 없는 삶
- ④ 3연의 '물 아래'와 5연의 '괴리도' : 속세에 대한 미련
- ⑤ 7연의 '드로라'와 8연의 '비조라' : 적극적 문제 해결 의지

광영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의 화자의 처지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성여자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산'과 '바르'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서 가는 도피처로서의 성격을 띤다.
- ② '널라와 시름 한 나도'는 화자의 시름이 더 많다는 뜻으로, 화자와 새의 대조법을 통해 시름의 깊이를 표현한다.
- ③ 작가를 유랑민으로 보았을 때, '임무든 장글란'은 '이끼 문은 쟁기일랑'으로 해석하며 이는 삶의 터전을 오랫동안 떠나있음을 암시한다.
- ④ '마자셔 우니노라'를 통해 인간에게 닥친 운명적 비애에 화자는 체념적인 태도로 일관함을 알 수 있다.
- ⑤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허금을 허거를 드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기적을 통해 해결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드래랑 먹고 ㉡청산(靑山)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우리라 우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영무든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이링공 더링공 허야 ㉣나스란 디내와손더
 오리도 가리도 업슨 ㉤바므란 쏘 엇디 호리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어딤라 더디던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므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살어리 살어리랏다 바르래 살어리랏다.
 ㉦느므자기 구조개랑 먹고 바르래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가 가다가 드로라 예정지 가다가 드로라
 ㉧사스미 짚대에 올라서 히금을 허거를 드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가다니 비브른 도기 설진 강수를 비조라
 조롱곳 누르기 미와 잡스와니 내 엇디 허리잇고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 작자 미상, <청산 별곡>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6. 윗글에 대해 잘못된 분석한 학생은?

- ① 서준 :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은 이상적인 공간으로도, 도피처로도 인식될 수도 있어.
- ② 준열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이 된 농민으로 본다면 ㉢은 화자가 속세에서 사용하던 물건을 의미할 거야.
- ③ 경수 : ㉣은 ㉤과 대비되는 시간으로, 화자가 현재와 같은 고독한 상황에 처하기 전 행복했던 시간을 의미해.
- ④ 우빈 : 윗글의 화자를 유랑민으로 본다면, 화자는 ㉦과 같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만족스럽지는 않겠군.
- ⑤ 동휘 : ㉧을 '진짜 사슴'으로 본다면 화자는 ㉨이 상징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이겠지.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7. 다음은 민호가 <청산별곡>에 대하여 추가적인 탐구를 진행한 후 작성한 발표 대본의 일부분이다. 민호의 대본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청산별곡>은 고려 가요에 속하는 작품으로, ①고려 시대에 창작되었으나 조선 시대에 와서 국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려 가요의 일반적인 형식적 특징을 <청산별곡>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②'살어리 / 살어리랏다 / 청산(靑山)에 / 살어리랏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4음보 율격, ③'알리알리 알랑성'과 같은 후렴구, ④연이 나뉘어 있음을 의미하는 분연체 등이 그것입니다. 고려 가요는 내용도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 <청산별곡>은 ⑤가혹한 현실에서 오는 비애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광주고등학교 (광주)

8. <보기 1>의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시어를 <보기 2>와 윗글에서 찾아 적고, 각 시어의 의미에 대해 서술하십시오. (단, 완결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보기 1>
 문학 작품에 동일한 시어가 사용되더라도 시어가 사용된 상황이나 화자의 정서 변화 등에 따라 그 역할과 의미는 매우 다르다. 또한 시어는 일상어와 달리 함축성이 강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의미나 정서의 연상이 가능하도록 기능한다.

<보기 2>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신 입을 어찌할꼬.
 - 백수광부의 아내, 「公無渡河歌(공무도하가)」

“경설” 문학 장르

작품 기관

간체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說)
성격	교훈적, 철학적, 관조적
제재	거울
주제	사물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
특징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 ② 구체적인 경험에서 보편적인 삶의 지혜를 이끌어 내고 있음. ③ ‘거사’라는 허구적 대리인을 내세워 작가의 인식을 표출하고 있음.

작품의 구성

‘거사’의 행동	‘거사’가 흐린 거울을 봄.
‘손’의 질문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에게 ‘손’이 의문을 제기함.
‘거사’의 답변	‘손’에게 흐린 거울의 의미를 설명함.

핵심 1 등장인물의 특성 및 역할

‘거사’ • 흐린 거울을 취함. •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님.	‘손’ • 맑은 거울을 취함. •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님.
↓	↓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함.	사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거사가 이를 반박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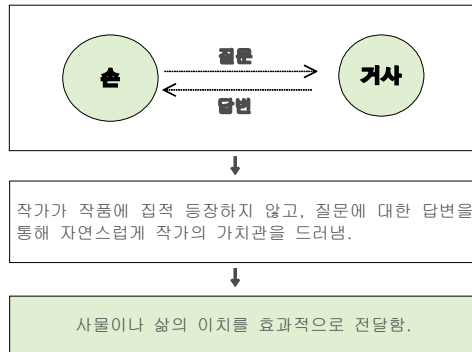
핵심 2 작가가 비판하고자 한 대상

비판의 대상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
↓	
• 세상을 버리고 도피하여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는 사회 풍조 •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들	

핵심 3 소재의 대립적 의미

맑은 거울 결점을 그대로 드러내서 지적하는 태도	↔	흐린 거울 결점을 수용하며 이해해 주는 유연한 태도
잘생긴 사람 군자와 같이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소수의 사람	↔	못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

핵심 4 표현상 특징 - 문답법



등장인물의 특성 및 역할

‘거사’ • 흐린 거울을 취함. • 사람의 결점을 포용할 줄 아는 태도를 지님.	‘손’ • 맑은 거울을 취함. • 사람의 결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태도를 지님.
↓	↓
삶에 대한 통찰력을 지닌 인물로,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함.	사물에 대한 통념을 제시함으로써, 거사가 이를 반박하여 새로운 주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함.

“경설” 학습 활동 순서

1 <경설> 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거사(居士)’가 말한 ‘맑은 거울’과 ‘흐린 거울’,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맑은 거울	⇔	흐린 거울
결점을 그대로 드러냄.		결점을 잘 수용하여 이해해줌.
잘생긴 사람	⇔	못생긴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없는 소수의 사람		도덕적으로 결점이 있는 다수의 사람

(2) ‘거사’가 희미한 거울을 취하는 까닭을 통해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거사’는 맑은 거울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못생긴 사람은 깨뜨리기 쉬우니 희미한 것이 낫고, 희미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본성이 맑으면 먼지는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여 흐린 거울을 취했다. 즉 ‘거사’는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만 보기보다는 그 결점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작품은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의 모습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주제를 전한다

2 <경설> 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 인식에 주목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을 바탕으로 하여 ‘손’과 ‘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내용 전개 방식		
흐린 거울을 보는 ‘거사’	⇒	‘거사’의 답변
	⇒	‘손’의 질문
	역할	인물 유형
‘손’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제시함.	기존의 상식에 얽매어 살아가는 인물
‘거사’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인식함.	•기존의 상식이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인물 •삶에 대해 통찰하는 인물

(2) 내용 전개 방식과 인물의 특성이 주제를 전달하는 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 ‘손’의 질문은 기존의 통념을 제시한 것이고, ‘거사’는 이러한 ‘손’에게 답을 하면서 통념을 깨뜨리고 올바른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손’의 질문과 이와 대비되는 ‘거사’의 답변을 제시하는 것은 ‘거사’가 기존 상식이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난 인물 유형임을 부각하고 있다. 결국 ‘거사’는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처세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3)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자 했던 당시 사회 풍조는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작가는 맑은 거울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들, 즉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 이규보는 무신 정변이 일어난 무렵에 태어나 무신 집권기에 주로 활동한 인물로, 무신 정권의 집권자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런데 당시 임춘과 같은 기존 귀족 출신들은 세상을 버리고 도피자 모임을 결성하여 잘못된 세상과 결별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이처럼 맑음만을 추구하는 사람, 즉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고, 이들의 태도를 풍자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다음은 뜻을 의인화하여 교훈을 전달한 작품인 <희생계(희생記)> 이다. 작가의 의도에 유의하여 ‘희생’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상상에 보자.

4-(2) 경설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한佳人(佳人)이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 입고 간들간들 걸어 와서 암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쐬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한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한 한 장부가 비웃어 가족끼리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성 밖의 한길 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배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띠풀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 설총, <화왕계(花王戒)>

작품 개관	
갈래	설화
성격	우화적, 교훈적, 우의적, 풍자적
제재	꽃(모란, 장미, 할미꽃)
주제	임금의 마음가짐에 대한 경계
특징	① 간신을 가까이하지 말 것을 임금에게 당부할 목적으로 창작됨. ② '모란', '장미', '할미꽃'을 '임금', '간신', '충신'으로 의인화하고 '장미'와 '할미꽃'을 대립시켜 주제를 드러냄.

작가는 임금에게 충언할 목적으로 이 작품을 썼는데, 모란, 장미, 할미꽃 등을 의인화하고 이들을 인간 세상에 빗대므로 우의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인(장미)'은 자신의 미모로 화왕의 환심을 사려고 하지만, '장부(할미꽃)'는 임금의 잘못을 말해 주는 신하를 등용하여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임금의 태도와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면, '화왕'이 두 신하 사이에서 고민하다 '장부'를 취하고 '장미'를 버리는 선택을 함으로써 본질을 제대로 보는 왕의 모습이 그려졌을 것이다.

갈래 가 같은 작품: 김창홍의 <낙지설>

이 작품은 이 하나가 빠진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내용의 고전 수필이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상황으로부터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에까지 이르는 과정을 설(說)이라는 형식을 통해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說)
성격	체험적, 성찰적
제재	예순여섯 살에 앓나 하나가 빠진 일
주제	늙음을 편하게 받아들여야 함.
특징	① 직접 체험한 지난 일과 다른 사람의 일 등을 보기 들어 보이며 글쓴이의 생각을 펼침. ② 글의 마지막에 직접 지은 노래(시)를 두어 글쓴이의 생각을 더욱 뚜렷이 드러냄.

표현 방법 이 유사한 작품: 강희맹의 <도자설>

이 작품은 작가가 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훈자오설(訓子五說)> 가운데 하나로, 사물의 이치를 해설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서술한 한문 문체의 일종인 설(說)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대한 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웅용과 창조를 거듭해야 함을 아버지 도둑과 아들 도둑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즉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경설>과 같이 우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說)
성격	교훈적, 우의적
제재	아버지 도둑과 아들 도둑의 이야기
주제	스스로 타당한 지혜의 중요성
특징	① 예화와 교훈의 2단 구성을 취함. ② 글쓴이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함. ③ 도둑 부자(父子)의 이야기를 들어 아들을 훈계하려는 의도로 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 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물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맑은 거울을 꺼리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 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결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꾀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

용화여자고등학교 (서울)

1. <보기>는 정우가 윗글 읽고 작품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메모이다. ㉣에 들어갈 말을 완성된 문장으로 쓰시오.

<보기>

‘거사’는 맑은 거울을 취하게 되면 다수의 못생긴 사람은 깨뜨리기 쉬우니 희미한 것이 낫고, 희미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본성이 맑으면 먼지는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아도 늦지 않다 생각하여 흐린 거울을 취했다. 이로 보아 ‘거사’는 다수의 사람이 결점이 있는데 지나치게 맑고 청명한 기준으로만 보기보다는

㉣“_____”라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경희여자고등학교 (서울)

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역설적 발상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구체적 경험에서 일반적 삶의 지혜를 이끌어낸다.
- ③ 고사를 인용하여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④ 처세훈적(處世訓的) 의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드러난다.
- ⑤ 문답법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나타내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경희여자고등학교 (서울)

3. ㉢의 관점에서 ㉡과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가 비판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서로 본질이 다른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모두가 취하려는 대상이다.
- ④ ㉡은 잘생긴 사람이 좋아하고 ㉢은 못생긴 사람이 좋아하는 대상이다.
- ⑤ ㉢은 소수의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대상이다.

pt005pt (카톡 ID)
내용 질문, 오류 신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물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다. 거사는 말하기를,

“거울이 밝으면 잘생긴 사람은 기뻐하지만 못생긴 사람은 꺼리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수요가 적고, 못생긴 사람은 수요가 많네. 만일 못생긴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게 된다면 반드시 깨뜨리고야 말 것이네. 그러니 먼지가 끼어서 희미한 것만 못하네. 먼지가 흐리게 한 것은 그 겉만을 흐리게 할지언정 그 맑은 것은 상우지 못하니, 만일 잘생긴 사람을 만난 뒤에 닦여져도 시기가 역시 늦지 않네. 아, 옛날 거울을 대한 사람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한 것이지만 내가 거울을 대하는 것은 그 희미한 것을 취하기 위함인데, 그대는 무엇을 괴이하게 여기는가?”

하였더니, ㉠손은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나) 신이 들으니 예전에 화왕이 처음 들어왔을 때, 향기로 운 꽃동산에 심고 푸른 장막으로 보호하였는데, 봄이 되어 곱게 피어나 온갖 꽃들을 능가하여 홀로 뛰어났습니다. 이에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에 이르기까지 곱고 어여쁜 꽃들이 빠짐없이 달려와서 혹시 시간이 늦지나 않을까 그것만 걱정하며 배알하려고 하였습니다. 홀연히 한佳人(佳人)이 붉은 얼굴 옥 같은 이에 곱게 화장하고, 멋진 옷을 차려 입고 간들 간들 걸어 와서 얌전하게 앞으로 나와서 말했습니다.

“첩은 눈같이 흰 모래발을 밝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마주 보며, 봄비로 목욕하여 때를 씻고, 맑은 바람을 상쾌하게 쬐면서 유유자적하는데, 이름은 장미라고 합니다. 왕의 훌륭한 덕망을 듣고 향기로운 휘장 속에서 모시고자 하는데 왕께서는 저를 받아 주시겠습니까?”

또한 한 장부가 벼웃에 가죽띠를 매고 허연 머리에 지팡이를 짚고, 힘없는 걸음으로 구부정하게 걸어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경성 밖의 한길 가에 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푸르고 넓은 들판의 경치를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색에 의지하고 있는데, 이름은 할미꽃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비록 좌우의 공급이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할지라도, 상자 속의 준비물에는 반드시 양약이 있어서 기운을 돋우고, 극약이 있어서 병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옛말에 생사와 삼베 같은 좋은 물건이 있다 해도, 왕골과 락죽 같은 천한 물건을 버리지 않아서, 모든 군자들은 결핍에 대비하지 않는 일이 없다 하오니, 왕께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

다.”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두 명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 설총, 「화왕계」

광성고등학교 (서울)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 모두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 ③ (가)와 (나) 모두 권위자의 말을 인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사물을 의인화하여 작가의 비판적 태도를 우의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 모두 고려 시대에 창작되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5. (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구체적 경험에서 보편적 원리를 추론하고 있다.
- ② 자연 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깨달은 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대상을 유추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 ⑤ 대상에 대해 서로 대립하는 관점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6. (가)를 통해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사회 풍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책임을 다른 이에게 떠넘기는 시류
- ② 외양 중심으로 사람을 평가하려는 외모지상주의
- ③ 물질적 가치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배금주의
- ④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렴한 태도를 지닌 고답주의
- ⑤ 세간의 평가에 휘둘리어 부화뇌동하는 처세주의

광성고등학교 (서울)

7. (나)에 대한 감상과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을 의인화하여 우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두 유형의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③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 ④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교훈을 주고 있다.
- ⑤ 서술자의 주관적인 판단과 시각이 드러나고 있다.

광성고등학교 (서울)

8. <조건>을 고려하여 (가)의 밑줄 친 ㉠이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조건>

- ‘거사의 말~’로 시작하는 완결된 한 문장으로 서술할 것.
- 띄어쓰기 미포함 20자 이내로 쓰되, 어법에 맞게 쓸 것.

관양고등학교 (경기)

9.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묻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津吏)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往來)가 없구려. *변화불측(變化不測)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萬頃)을 헤매다가, 바람은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魂魄)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명(命)이 지척(咫尺)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하니, /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 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無常)하니, 평탄 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끈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

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량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 세상이란 한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바탕 큰 바람이니, 하잘것없는 내 한 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잡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잎 조각배로 만 리의 부슬비 속에 떠 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사람 한 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後患)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 권근, 「주옹설」

- *주옹 : 배에서 사는 사람. 뱃사람.
- *진리 : 나루터를 관리하는 벼슬아치.
- *변화불측 : 끊임없이 달라져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음.

- ① (다)와 <보기>는 상반된 관점을 지닌 두 사람의 문답을 통해 전개하고 있군.
- ② (다)의 ‘거사’와 <보기>의 ‘주옹’은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허구적 인물이군.
- ③ (다)와 <보기>는 역설적인 발상을 통해 세상에 대한 태도와 참된 삶의 방식을 깨우쳐 주고 있군.
- ④ (다)는 남의 허물도 수용하는 유연한 삶의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군.
- ⑤ <보기>는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위해 자연의 이치를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자연친화적인 사상을 담고 있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거사(居士)에게 거울 하나가 있는데, 먼지가 끼어서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빛처럼 희미하였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여다 보고 마치 얼굴을 단장하는 사람처럼 하였더니, 어떤 손[客]이 보고 묻기를,

“거울이란 얼굴을 비치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군자가 그것을 대하여 그 맑은 것을 취하는 것인데, 지금 그대의 거울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희미하니, 이미 얼굴을 비칠 수가 없고 또 맑은 것을 취할 수도 없네. 그런데 그대는 오히려 얼굴을 비추어 보고 있으니,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4-(1) 주몽신화

1.① 2.① 3. (1) <주몽신화>에서는 금와왕이 유화가 낳은 알을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버린 것에서 나타나고, <홍길동전>은 홍길동이 황판서의 첩인 초란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알고 집을 나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탁월한 능력 ㉡위대한 업적 4. ② 5.④ 6.④ 7.(1) 전기성 (2) 처음~낳았다, 목구멍을~날아갔다. 8.⑤ 9.① 10.유화와 웅녀 모두 고난을 극복하였으며, 건국 시조를 낳았고, 신이한 존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11.⑤ 12.(1) 주몽 신화의 구성방식은 영웅의 일대기 구조이다. (2) 천신과 수신의 결합 13. ③ 14.⑤ 15.④ 16.② 17.⑤ 18.④ 19.④ 20.② 21.③ 22.주몽은 알에서 태어났지만, 단군은 일반적 출생의 과정을 겪었다. 23.④ 24.⑤ 25.④ 26.② 27.(나)의 낙구는 '아아' 감탄사로 시작하여 화자의 감정을 집약하고 시를 마무리하는 기능을 한다. 이것이 시조의 형식에 영향을 주어 (다)에서도 종장의 첫음절에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통해 시상을 집약하며 시를 마무리한다. 28.② 29.④ 30.④

4-(1) 공무도하기

1.④ 2.⑤ 3.① 4.㉠은 사랑, ㉡은 이별, ㉢은 죽음에 해당한다. 5.③ 6.③ 7.④ 8.② 9.④ 10.③ 11.④ 12.① 13.③ 14.⑤ 15.⑤ 16.③ 17.① 18.② 19.이별의 슬픔과 같은 보편적인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20.(가)는 임과 죽음으로 인해 이별했으나, (다)는 시적 대상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별했다. 21.① 22.⑤ 23. ④ 24.⑤ 25.③ 26.① 27.③ 28.⑤ 29.④ 30.이별, 슬픔, 단절, 사랑, 죽음 등을 뜻한다.

4-(2) 찬기파랑가

1.⑤ 2.이 글의 '아아'와 <보기>의 '어즈버'는 모두 감탄사로 앞부분까지 전개되던 시상을 집약하면서 전환하는 공통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유사성은 향가와 시조 사이에 문학적 전통이 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3.③ 4.흐느끼며 바라보매 / 이슬 밝힌 달이 5.⑤ 6.① 7.② 8.<보기>가 3단 구성으로 이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의 '아아'와 같은 낙구의 감탄사가 <보기>의 종장 '어즈버'와 같은 3음절로 고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9. '달'은 모두가 우러르는 고귀함을 뜻한다. '넋물'은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낸다. '조약돌'은 원만하고 강직한 성품을 뜻한다. '잔나무'는 기파랑의 높은 지조를 뜻한다. 10.④ 11.① 12.

⑤ 13.② 14.③ 15.(1) 물서리'는 기파랑의 맑고 깨끗한 성품을 드러낸다. '자식가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절개를 드러낸다. (2) 시상을 고양하고 압축하는 역할을 한다. 16.② 17.1) 아아, 어즈버 2) 시상을 집약한다. 18.⑤ 19.⑤ 20.⑤ 21.② 22.⑤ 23.④ 24.② 25. ② 26.④ 27.(가)아아 (다)어즈버 28.② 29.④

4-(2) 청산별곡

1.시적 화자는 5연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고통 때문에 절망하고 있고, 8연은 술을 마셔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고자 한다. 2.⑤ 3.① 4.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의 비애를 뜻한다. 5.② 6.③ 7.② 8.윗글의 '물'은 속세를, <보기2>에서 '물'은 사랑, 이별, 죽음 등을 뜻한다. 9.④ 10.상업보다 농업을 중요하게 여겼다 11.⑤ 12.⑤ 13.(1)같은 둥그렁고 가운데는 네모나며 (2)공방의 이름을 통해 표리부동한 성격이 드러난다. 14.② 15.④ 16.② 17.⑤ 18.(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질삼뵈'를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라가겠다는 적극적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보기>의 화자는 임을 붙잡으면 임께서 서운함을 느낄까봐 붙잡지 못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난다. 19.㉠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운다. ㉡ 미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다. 20.④ 21.(가)는 분연체(분절체)이고 후렴구가 있지만, (나)는 단연이고 후렴구가 없다. 22.② 23.④ 24.③ 25.④ 26.① 27.② 28.후렴구,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 연과 연을 구분한다. 밝고 경쾌한 느낌을 준다. 29.㉡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 ㉢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 ㉣ 현실의 고통과 외로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하는 매개체 30.④ 31.③

4-(2) 경설

1.다른 사람의 결점을 포용하는 유연한 태도를 갖자. 2.③ 3.⑤ 4.② 5.① 6.④ 7.⑤ 8.거사의 말을 듣고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9.⑤ 10.④ 11.① 12.④ 13.⑤ 14. ② 15.④ 16.② 17.⑤ 18.③ 19.⑤ 20.④ 21.작가는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를 가진 사람을 풍자하고 있다.

4-(2) 시조 세 편

1.④ 2.② 3.④ 4.② 5.(가)~(다)의 '장'이 (라)에서는 '연'으로 바뀌었다, (가)~(다)는 1'장'이 1행으로 되어 있지만, (라)는 1연이 1행인 것도 있고, 2행인 것도

4-(1) 주몽신화

1.①

㉔: 주몽 어머니의 신이함임.

2.①

▶ 주몽과 어머니가 이별할 때 오곡의 씨앗을 싸서 주는 것으로 보아 농경이 신성시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②

▶ (나)는 주인공이 아닌, 하백과 해모수의 도술 시험임.

5.④

ㄱ: 주몽의 어머니는 유화로 신적인 존재로 보기 어려움.
 ㄷ: <보기1>에서 고난과 시련은 없음.
 ㄹ: <보기1>에 주인공인 단군왕검의 비범한 능력이 제시된 것은 아님.

6.④

▶ ㉔은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임.

8.⑤

▶ ㉔(주몽)은 ㉕(금와 왕)가 시키는 일(말을 기르는 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일단 후일(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모(圖謀)하기 위해 말 기르는 일을 계속하였다.
 ① ㉕(해모수)는 구혼 상대에게 중매를 보내는 예를 갖추지 않아 상대로부터 꾸지람을 듣는다.
 ② ㉕(해모수)는 유화를 왕비로 삼으려 함.
 ③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라는 평가를 듣는 인물은 주몽임.
 ④ ㉔(주몽)가 장차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우려하여 그를 마목(馬牧)에 버려 제거하려 한 이들은 ㉕(금와 왕)의 아들들임.

9.①

▶ ㉔: 주인공은 하늘의 혈통인 부계(父系)와 물의 신인 모계(母系)의 혈통이 결합하여 태어났다.

11.⑤

▶ ㉔(주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을 ㉕(금와 왕)의 자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대사("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㉔(주몽)에게 시련이 닥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①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변경한 이는 ㉕(해모수)이 아니라, ㉕(부여 왕)임
 ② ㉕(해모수)의 장인은 ㉕(해모수)에게 자신이 화가 난 이유(중매 없이 구혼 함)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 ㉕(금와 왕)이 아닌, ㉔(주몽)과 그의 어머니의 지혜를 일화를 통해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두 인물 모두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④ ㉔(주몽)이 햇빛을 통해 잉태된 것은 태양 숭배 사상이 아닌,

하늘의 혈통임을 드러냄.

13.③

▶ 민중에 의해 구비 전승되어 온 집단 창작물이다.

14.⑤

▶ ㉔: "주몽은 신용(神勇)이 있는 장사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일찍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後患)이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주몽이 시련을 겪을 것임을 알 수 있다. ㉔: 주몽과 어머니의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모두 비범한 인물임을 알 수 있음.

▶어머, 이견 외워야 해!◀

구체적 서술 vs 요약적 서술 (★★★)

ㄱ. 구체적 서술: 인물의 대화, 상황 및 사건 등의 묘사
 ㄴ. 요약적 서술: 인물의 내면,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인 내용 (서술자 직접 전달)

요약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빠른 반면 구체적 서술은 사건의 전개 속도가 느려 이야기의 흐름이 지연된다.

15.④

▶ 조력을 받는 과정을 표현하기 위한 것은 ㉔임. ㉔의 '오이, 마리, 협보'는 주인공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같이 떠나는 인물들임.

16.②

▶ 주몽이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했다는 서술은 영웅의 비범함을 나타내어 집단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설정이다.
 ① 울음이 컸다는 것만으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없음.
 ③ 왕이 마목을 돌아본 후 주몽에게 아뢴 말을 준 것은 주몽을 시험하고자 함임.
 ④ 주몽이 어머니와 이별하여 오곡의 씨앗을 받은 것은 농경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임.
 ⑤ 태자 대소가 주몽을 두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고 평가한 것은 후환이 두려워서임.

17.⑤

▶ 단군은 시련과 고난의 과정이 없음.

21.③

▶ 파리들이 주몽의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게 된 부분은 주몽이 '탁월한 능력'을 보이게 되는 계기에 해당함.

23.④

▶ 주몽이 말을 깨고 나오는 것은 태양 숭배 사상과 관련됨.

25.④

▶ 시적 대상(기파랑, 고려 왕조)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6.②

▶설화와는 상관없음.

28.②

▶㉠ :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짐작할 수 있다.

29.④

▶㉡ : 태자 대소에게 능력을 의심받은 것이 아니라 주몽의 비범한 능력으로 후환이 두려워 주몽이 위기에 처한 것임.

30.④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임을 천하에 알리고자 할 따름이다.'를 통해 알 수 있음.

4-(1) 공무도하가

2.⑤

▶㉢만이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를 나타내면 나머진 위 시들처럼 임에 대한 정서를 나타냄.

◆주제 저장소◆

- ① <마음이 어리석으니~>: 임을 기다리는 마음
- ② <천만리 머너먼 길에~>: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
- ③ <방 안에 켜 있는 촛불~>: 임금을 이별한 애절한 마음
- ④ <배꽃이 비 내리듯~>: 임을 그리는 마음
- ⑤ <청산 속에 흐르는~>: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의 권유

▶옳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3.①

▶(가)는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이 아님.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 ㄱ. 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 ㄴ. 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 ㄷ. 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시의 전개 방식 (★)

- ㄱ. 시간적 전개: 순행적, 역순행적
- 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화자가 직접 이동
- ㄷ. 시선의 이동에 따른 전개: 근경→원경, 원경→근경
- ㄹ. 대립적 전개
- ㅁ. 수미상관식 전개: 처음과 끝이 동일 혹은 비속
- ㅂ. 선경후정: 경치+정서
- ㅅ. 기승전결: 시상을 일으키고 발전과 전환 후 마무리

3. 음성 상징어 (★★★)

: 사람이나 동물의 소리를 흉내 낸 말. (의성어/의태어)
 <의태어: 대상의 모양, 움직임 흉내>과 <의성어: 대상의 소리 흉내>는 확실히 구분되기도 하지만 한 단어가 의태어로도 의성어로도 쓰일 수 있으니 문맥 속에서 잘 따져야 한다.

퍼덕퍼덕: 큰 새가 가볍고 크게 잇따라 날개를 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부글부글: 많은 양의 액체가 야단스럽게 잇따라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5.③

▶(나)는 개인 서정의 노래임.

6.③

▶ㄴ. 지적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음. ㄷ. 정서가 걱정과 초조에서 체념과 한탄으로 변화한다. ㄹ. 감정은 간접 표출됨.

▶응, 헛갈리지 마!◀

자조 vs 체념 vs 한탄 (★)

- *자조: 자기를 비웃음.
- *체념: 희망을 버리고 아주 단념함.
- *한탄: 원통하거나 뉘우치는 일이 있을 때 한숨을 쉬며 탄식함.

▶넣어둬, 패턴 공략◀

시에서 <말의 반복>은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와 관련된다.

7.④

▶㉣는 고달픈 세상살이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함을 나타내면 나머진 (가)처럼 임에 대한 정서를 나타냄.